

## CONTENTS

| 머리말 |  | 4 |
|-----|--|---|
|-----|--|---|

## 대의 파악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빈칸 추론하기** 

| STEP01 기초   |    | 10 |
|-------------|----|----|
| STEP02 중급   |    | 36 |
| STEP03 상급   |    | 62 |
| STEP04 함의 = | 추론 | 88 |

| STEP01           빈칸이 첫 문장인 경우         | 104 |
|---------------------------------------|-----|
| STEP02<br>빈칸이 전반부에 위치할 경우             | 118 |
| STEP03<br>빈칸이 중반부에 위치할 경우 ··········· | 136 |
| STEP04<br>빈칸이 후반부에 위치할 경우             | 158 |
| STEP05<br>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위치할 경우 ····     | 176 |

## 단락 연결하기(순서 찾기)

STEP01 기초 ····· 204 STEP02 중급 ····· 218 STEP03 상급 ----- 236 STEP04 최상급 ····· 254

## 문장 삽입

| STEP01 기초 | <br>274 |
|-----------|---------|
| STEP02 중급 | <br>292 |
| STEP03 상급 | <br>310 |

## 머리말

'딱, 첫 - 문장이면 된다.' 이 책을 한 마디로 말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이 책은 '글쓰기 논리'를 통해, 영어 독해를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영어는 외국어이기 이전에 한 편의 글이다. 어떤 글이든 논리성을 갖추어야 하며 글쓰기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슬프게도 '글쓰기 원리'를 배워본적이 없다. 그래서 영어는 외계어같이 느껴지고 해석이 불가능하거나 해석을 했더라도 문장의 표면적 의미에만 다가갈 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글이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만다. 이렇게 영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어찌 학생들의 능력 탓이겠는가?

이제, 기존의 영어 책에는 없었던, 우리가 몰랐던 영어 글쓰기 논리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것도 첫 문장과 첫 단락이 글의 내용과 범주를 결정하는 논리적 힘을 보게 될 것이다. 즉, 첫 문장의 범주만 잡으면, 글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며 어떤 순서로 내용이 서술되며, 어떤 단어가 문장이 핵심이 되는지 예측하며 읽어갈 수 있을 것이다. 첫 문장은 한 단락에서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그것이 글의 핵심을 이미 결정해 버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첫 문장을 통해 미시적인 독해, 즉 한 문장 한 문장의 구조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 거시적 관점에서 이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구조로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알게 될 것이다.

나, 최인호는 20년간 150만명 이상의 학생들을 가르쳤으며, 비록 졸작들이지만 8권의 인문학 책을 썼다. 국어와 논술을 통해 글쓰기 논리가 무엇인지 가르쳤으며,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배경 지식이나 작품 내용 암기 없이 낯선 글과 작품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했다. <영어, 첫 - 문장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이다. 글쓰기 논리를 통해, 어떤 낯설고 어려운 영어 지문이라도 쉽고 빠르게 독해할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한다. 어쩌면, 이 책은 영어 책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냥, 영어로 쓰인 최초의 '논리 공부' 책일 것이다. 부디 이 책을 만나는 모든 학생들이 '영어 독해'에 자신감을 갖기 바란다.

최 | 인 | 호

## 이 책의 구성과 활용법

#### 책의 내용 분류

#### 4가지 핵심 문제 유형으로 분류함

- 01. 요지 파악 글의 주제, 제목, 함의 추론
- 02. 빈칸 추론
- 03. 단락 연결
- 04. 문장 삽입

#### 단계별 난도 구분

#### 수험생들의 정답률을 기준으로 4단계로 분류함

STEP1 기초 단계

STEP2 중급 단계

STEP3 상급 단계

STEP4 최상급 단계

## 책의 구성 composition

#### 한 제시문 분석의 다층적 분석

#### 한 제시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함

- 1단계 원문과 문제
- 2단계 글쓰기 논리를 통한 제시문 접근법 분석 및 선택지 정·오답 분석
- 3단계 원문에서 논리 독해에 필요한 핵심 단어 집중 파악 및 3단 논리를 통한 거시적 내용 파악
- 4단계 핵심 구문 분석과 핵심 어휘의 어근 분석

#### 책에 실린 제시문들

- 1) 최근 4년간 수능 문제
- 2) 최근 4년간 평가원 모의고사



How to Study

#### 이 책은 논리 책이다.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논리적 설명 을 제공하는 제2장의 '최인호 논리'와 '선택지 논 리'이다.

이 부분에서 '첫 문장'의 범주와 전개 내용 예측 등을 배우고 여러 번 반복하기를 권한다.

#### 이 책은 미시적인 독해 책이기도 하다.

세 번째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구문 분석' 부 분이다.

아직 영어 문장 독해가 정밀하지 못하고, 서툰 학 생들은 이 챕터에서 문장 독해의 원리를 익히기 바 란다.

#### 이 책은 거시적 독해 책이다.

두 번째로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해석의 3단 논 리' 부분이다.

한 문장 한 문장의 미시적 독해에 집착하기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단어가 '문맥적 동의어'로 반복되고 있는지를 숙지하기를 권한다.

#### 'YouTube' 강의를 통해 복습하라.

특히, '최인호 논리' '선택지 논리'가 어렵게 느껴 지는 학생들은 'YouTube' 강의를 통해 반복하면서 논리를 익히기 바란다.

#### 결론

이 책은 다르다. 많이 다르다. 따라서 마음을 열고 책을 접해야 한다. 논리라는 낯선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며, 무언가 새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이 책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게 된다면, 한 차원 다른 영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 | 인 | 호

# 01

## **대의 파악**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 최인호 독해 논리

#### 01 한 단락의 주제, 요지는 일반적으로 마지막 문장이다.

- 1) 첫 문장의 서술어에 주목하라. 주제의 전제(범위)
- 2) 첫 문장의 서술어 범위 안에서 나머지 문장을 읽어라.
- 3) 중간에 <역접과 결론 접속사> 이후 부분이 핵심이다.
- 4) <역접과 결론 접속사>가 없다면,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다.
- 5) <역접과 결론 접속사>가 없다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동일한 핵심이다.
- 6) 주제문장 = 중심화제 + 화제에 대한 핵심적 속성 혹은 주장 (범위가 넓은 단어)

> 두제문자은 '중시쇼나제'를 싼드시 또한테야 한다.

#### 02 제목찾기

- 1) 제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
- 2) 제목은 지문의 주장이나 핵심적 근거들을 포괄하는 추상적 단어(지문에 없기도 한)로 이루어 진다.
- 3) 제목은 지문의 주장이나 핵심적 사항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 4) 제목에는 반드시 중심 화제를 포함하고, 핵심적 사항들을 포괄하는 서술어가 존재해야 한다.

#### 03 함의 추론

- 1) 함의 추론이란, 단어 속에 함축되어 숨어 있는 내용을 풀어서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 2) 함의 추론에서는, 먼저 '주어진 함의 단어나 어구'를 확인하고, 그 단어들의 근원적 의미를 생각해 본다.
- 3) 함의 추론에서, '주어진 함의 단어나 어구'는 비유와 상징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면 그 단어가 비유하고 있는 원관념의 단어를 '지문'에서 파악하자.
- 4) '주어진 함의 단어나 어구'의 의미는 첫 문장 핵심 단어의 범주에서 파악하라. 핵심 단어가 파생될 수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이다.
- 5) '주어진 함의 단어나 어구'의 의미는 마지막 문장(주제 가능)의 핵심어와 연관지어 파악하자. '함의'란 글의 핵심, 즉 주제를 함축적으로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6) 만약, '주어진 함의 단어나 어구'가 '대칭적 구'의 형식, 즉 '속담이나 고사'라면, 두 단어의 대 칭 관계를 파악하면, 함의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

01

**대의 파악**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STEP 01

01.

18학년도 수능 / 오답률 : 13%

02.

16학년도 수능 / 오답률 : 13%

03.

16학년도 수능 / 오답률 : 16%

04.

18학년도 9월 / 오답률: 17%

05.

19학년도 수능 / 오답률 : 18%

06.

17학년도 수능 / 오답률 : 20%



#### CHAPTER 01

대의 파악: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18학년도 수능 I 오답률: 13%

## 💵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e exercise in teamwork I do at a company retreat is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At one particular retreat, there were eight people in the circle, and I slowly handed tennis balls to one person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then the maximum number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 is N minus 1. Why?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to throw and catch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e exercise i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action.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catching the ball than throwing it.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If you're less concerned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than with how you receive it, you'll ultimately fail at delegation. You have to be equally skilled at both.

\*delegation: 위임

- ①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 의식이 협업의 필수 조건이다.
- ②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 ④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 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 "시례로 시작하는 첫 문장에서는 사례가 끝난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서술의 범주이다."

첫 문장에서, '협동 활동 중의 하나는 집단을 원형으로 앉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원형'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이 글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일단, 사례가 계속되면 그 부분은 빠르게 지나가고 사례가 끝난 다음 문장, 그것을 정리하는 부분을 찾자. 그 부분이 'The purpose of ~' 이다. 즉, 이런 원형에서 공을 주고받는 일(사례)의 목적은 '개인 행동의 중요성'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원형에서 개인의 어떤 행동이 중요한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기고 그것의 답이 진짜 핵심이 될 것이다. 마지막 문장에 그 답이 서술되어 있다. '당신은 정보(공)를 받는 것만큼 주는 것도 동등하게 능숙해야 한다.' 라고. 그렇다면, 이 글의 요지는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것 모두에 능숙해질 때 당신은 회의를 진행하는(협동을 이끌어가는) 대표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선택지 논리 분석

점탑: 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 '협업' 혹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으로서의 대표'가 포함되어 있고, '전달하는 방식에도'에서 '~ 도'라는 것은 상대적인 다른 것과 반대의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미(보조사)이다. 그렇다면 '정보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것까지'가 중요하다는 것으로 둘 다 중시하는 마지막 문장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 오답

- ①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의식이 협업의 필수조건이다. '협업'이라는 단어는 글의 핵심에 포함되지만 '공통된 목표의식'은 핵심 부분이 아니다. 핵심은 '정보를 주는 것과 받는 것 모두에 능숙한 능력이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없다.
- ②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정확한 정보 이해'와 '신속한 업무 수행'은 이 글의 핵심 범위가 아니다.
-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직무 만족도' '자유로운 의사소통' 모두 글의 핵심 범위인 '협업' 과 '정보를 주고받는 것의 동등한 능력'에 관한 것과 다르다.
- ④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협업은 글의 범위와 일치하지만 '여가 활동'에 관한 글이 전혀 아니다. 여기서 탁자 위에서 공을 주고 받는 것은 '여가 활동'이 아니라 '정보(공)를 주고 받는 훈련'에 대한 비유일 뿐이다.

## 논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One exercise in teamwork I do at a company retreat is to put the group in a circle. At one particular retreat, there were eight people in the circle, and I slowly handed tennis balls to one person to start throwing around the circle. If N equals the number of people in the circle, then the maximum number of balls you can have in motion is N minus 1. Why?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to throw and catch at the same time. The purpose of the exercise is to demonstrat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action. People are much more concerned about catching the ball than throwing it.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If you're less concerned about how you deliver information than with how you receive it, you'll ultimately fail at delegation. You have to be equally skilled at both.

\*delegation: 위임

- ① 구성원 간의 공통된 목표 의식이 헙헙의 필수 조건이다.
- ② 정확한 정보 이해는 신속한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다.
- ③ 자유로운 의사소통 문화는 직무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
- ④ 여가 활동을 함께하는 것도 협업의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 ⑤ 협업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에도 능숙할 필요가 있다.

#### 해석 3단 논리

협동 활동을 위해 직원들을 원탁 위에 앉힌다. 왜 원탁일까?

공을 던지고 받

원탁 위에서 공을 던지고 받는 활동을 하는데, 직원들은 <mark>받는 것</mark> <mark>에 치종</mark>한다.

하지만, 받는 것에만 치중하면 대표가 되는 것에 실패할 것이다. 따라서 받는 것과 주는 것의 동 등한 실력을 갖춰야 한다.

#### 원문 해석

회사 휴양 시설에서 내가 실시하는 협업 분야의 한 가지는 그 집단을 원형으로 둘러 세우는 일이다. 어느 특정 휴양 시설에서는, 여덟 명이 원으로 둘러섰는데, 나는 천천히 한 사람에게 테니스공을 건네주고 원을 따라 던지기를 시작하도록 했다. N이 원을 그리고 둘러선 사람들의 수라고 하면, 여러분이 던지게 할 수 있는 공의 수는 N-1이다. 왜 그럴까? 던져 주면서 동시에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활동의 목적은 개개인 행동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공을 던져 주는 것보다는 잡는 데 더 신경을 쓴다. 이것이 입증하는 것은 운동의 성공에 있어, 당신이 그 공을 받을 수 있느냐 만큼 당신이 (공을) 던진 그 사람이 그 공을 받을 수 있느냐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만약 여러분이 정보를 어떻게 받는가보다 자신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덜 신경 쓴다면, 여러분은 결국 (임무의) 위임에 실패할 것이다. 두 가지 모두에 동등하게 능숙해야 한다.



#### **Essential Sentence Structure**

Because it's almost impossible to throw and catch/at the same time.

```
* lt은 '가주어'이고, '친주어'는 to throw and (to) catch 이다.
주로 To-v나 That절이 주어인 경우, 주어 자리에 it을 사용하고 진짜 주어(To-v, That절)은 뒤로 보낸다.
```

**Q2.** What this demonstrates is that it's equally important to the success of the exercise that the person you're throwing to catches the ball as that you are able to catch the ball.

```
* It은 '가주어'이고, '진주어'는 that 결혼 사용되었다.

* What this demonstrates는 What 절이 '주어'자신에 쓰였다.

What 절의 문자구도 '활년전'하다. 해석은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

* 'as'는 의미가 다양한 '다의어'이다.
'as'가 전치사로 쓰이면 1. ~와 같이(처럼) 2. ~로(서)
'as'가 '접속사'로 쓰이면

1. ~할 때(동안에) 2. ~처럼, ~대로 3. ~에 따라 4. ~때문에 5. 비록 ~일지라도
```

#### PLUS+

```
* -trac(t), treat, trai = draw(量다)

<u>re</u>treat v. 置加叶叶; 절粉叶 <u>at</u>tract 1. 때력差 置叶 = back n. 节目, 整介; 料豆腐, 昨衛山, 杂步(小堂) = t0 2. 量时量이다
```

#### **Essential Voca**

```
      • company retreat
      회사 휴양 시설
      • purpose 목적
      • ultimately 결국

      • put ~ in a circle ~을 원형으로 둘러 세우다
      • demonstrate 증명하다, 보여주다

      • have ~ in motion ~을 움직이게 하다
      • be concerned about ~에 관심을 가지다
```



#### CHAPTER 01

대의 파악: 주제, 요지, 제목, 함의 추론





16학년도 수능 / 오답률: 13%

## 0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negative effects of extrinsic motivators such as grades have been documented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es. Although this matter is more complex than simply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 we agree with Richard Ryan and his colleagues that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when their primary goals are intrinsic rather than extrinsic. Another consistent research finding is that when a learning activity is undertaken explicitly to attain some extrinsic reward, people respond by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ensuring the reward.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of evidence that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of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may contribute to inferior learning,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pedagogy: 교수법

- ① 적절한 외적 보상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② 학습자의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균형이 필요하다.
- ③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이론의 확립이 중요하다.
- ④ 내적 동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 ⑤ 내적 동기 부여가 문화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이다.













#### 첫 문장의 상대어(외적, 부정적)에 집중하라

첫 문장에서, '외적 동기(extrinsic)의 부정적(negative)인 영향'이 서로 다른 문화권에 나타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mark>'extrinsic'</mark>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한 대립적 상대어 <mark>'내적</mark> (intrinsic) 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첫 문장을 읽고 궁금해지는 것은 '왜, 외적 동기가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칠까?'와 그렇다면, '내적인 동기(intrinsic)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네.'라는 추측이다. 그런 논리로 글을 읽다 보니 '내적 동기의 긍정적 효과'가 보인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보면, '내적 동기가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에게 학습 강화에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문장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내적 동기'와 '학습 효과'에 관한 글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요지는 '내적 동기 부여 는 다양한 문화권 학생들 모두에게 학습을 강화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이다.' 정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선택지 논리 분석

점달: ⑤ 내적 동기 부여가 문화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이다. - 이 글의 핵심인 내적 동기 부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의 긍정적인 흑면으로 효과적임을 밝혔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다.

#### 오답

- ① 적절한 외적 보상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외적 보상이 오히려 학습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내용과 정반대이며 화 제인 내적 동기에 관한 언급이 없다.
- ② 학습자의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와의 균형이 필요하다. 외적동기는 부정적이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
- ③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이론의 확립이 중요하다. 이 글은 문화적 다양성이 화제가 아니다. '내적 동기'가 화제이 다. 따라서 화제와 범주가 일치하지 않는다.
- ④ 내적 동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정답의 후보이다. 내적 동기와 교육적 기능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가 시급하다'라는 것은 아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전제인데 이 글에서 이미 연구를 진행해 서 그것의 효과를 입증해서 보여주고 있다.

## 논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The negative effects of extrinsic motivators such as grades have been documented with students from different cultures. Although this matter is more complex than simply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 we agree with Richard Ryan and his colleagues that people 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 when their primary goals are intrinsic rather than extrinsic. Another consistent research finding is that when a learning activity is undertaken explicitly to attain some extrinsic reward, people respond by seeking the least demanding way of ensuring the reward.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of evidence that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of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may contribute to inferior learning,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enhancing learning 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pedagogy: 교수법

- ① 적절한 외적 보상이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 ② 학습자의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의 균형이 필요하다.
- ③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이론의 확립이 중요하다.
- ④ 내적 동기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가 시급하다.
- ⑤ 내적 동기 부여가 문화 배경이 다른 학생들의 교육에 효과적이다.

#### 해석 3단 논리

외적 동기는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mark>부정적인</mark> 명항을 보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주요 목표가 외 적일 때보다는 <mark>배적일 때 더 만족</mark> <mark>경</mark>을 느낀다.

내적 동기에 기반을 둔 교수법이 다양한 문화권의 학생들의 학습에 효과적이다.

#### 원문 해석

성적과 같은 외적 동기 부여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은 다양한 문화권 출신의 학생들로 입증되어 왔다. 비록 이 문제는 단지 모든 외적 보상을 통제 혹은 학습 감소로 여기는 것보다 더 복잡하지만, 다양한 문화에 걸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된 목표가 외적이기보다는 내적일 때 삶에 더 만족감을 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Richard Ryan과 그의 동료들에게 우리는 동의한다. 또 다른 일관된 연구 결과는 어떤 외적인 보상을 얻기 위해 명시적으로 학습 활동을 수행할 때 사람들은 그 보상을 보장해 주는 가장 덜 힘든 방식을 추구하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외적 보상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가르침이 지배적인 것이 질 낮은 학습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30년간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적 동기 부여 이론에 기초를 둔 교수법을 사용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다양한 학생들 사이에서 학습을 증진시키는 데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접근법인 것 같다.



#### **Essential Sentence Structure**

O1. Although this matter is more complex than simply regarding all extrinsic rewards as controlling or diminishing learning,//we agree with Richard Ryan and his colleagues that people(across different cultures) are likely to express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lives//when their primary goals are intrinsic rather than extrinsic.

```
* Although A, B: 日華 AZL 並以上至, B工L. (B童 なな) * more A than B * be likely to-V * regard A as B: A章 B至 时に(七年まれて) B生れ Ao I工L. V 地 11号はり 量다
```

**Since** there are three decades of evidence that dominating instruction (with a system of controlling external rewards) may, contribute to inferior learning, using a pedagogy based on theories of intrinsic motivation appears to b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approach/to enhancing learning/among culturally diverse students.

#### PLUS+

```
* -ply, plic = fold(저다)

explicit 떠시적인, 분파하는 __mulitply 때리면 지다
= out = many 1. 끊하다
2. 중가시키다
= in
```

#### **Essential Voca**

- extrinsic 외적인
- motivator 동기를 부여하는 것
- document 서류로 입증하다, 뒷받침하다
- diminish 감소시키다
- intrinsic 내적인
- consistent 일관된, 지속적인
- explicitly 명시적으로

- attain 얻다, 획득하다
- dominating 지배적인
- contribute to ~의 원인이 되다, ~에 기여하다
- inferior 질 낮은, 하등한
- motivation 동기부여
- reasonable 합리적인
- enhance 증진시키다

# 02

## 빈칸 추론하기

## 최인호 독해 논리

#### 01 첫 문장에서 서술의 범주를 파악하라.

(예를 들어)

사과는 달콤하다 - 맛있다는 맛의 범주, 향기나 모양, 색깔의 범주와 다르다.

비행기는 날다 - '어떻게' 날까? 라는 '방법'의 범주

생산이 늘면 가격이 내려간다 - '왜 ' 내려가지?라는 '원인'의 범주

#### 02 첫 문장 해석이 어려우면, 두 번째 문장의 서술어에 주목하라

왜냐하면, 첫 문장의 서술어와 두 번째 문장 서술어의 논리적 범주는 같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첫 문장의 서술어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두 번째 문장은 첫 문장 서술어의 구체어에 속한다는 점이다.

03 첫 문장 혹은 두 번째 문장에서 범주( = 해석의 기준)를 잡았으면, 그 범주만 생각하면 서 그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들 중심으로 선별 독해를 하라.

### 04 빈칸 부분의 앞부분에 역접의 접속사 존재 유무를 확인하라. 역접의 접속사가 있다고 해도, 범주는 달라지지 않고 속성이나 관점만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첫 문장이라면 이어지는 문장은 속도가 빠른 이유가 나올 것이며 그것이 '기체가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범주는 '질량, 즉 무거움 과 가벼움'이다. 따라서 역접의 접속사(but)가 오더라도 답은 '가벼움'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빈 칸의 내용은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에서 잡은 범주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 해 앞 문장과 뒷 문장을 해석해보면 된다.

05 선택지를 볼 때도, 주어진 단어들 중에서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범주 안에 있는 단 어가 존재하는 것을 정답으로 선택해야 한다.

# 02빈칸 추론하기



STEP 01

빈칸이 첫 문장인 경우

**01.** 

17학년도 6월 / 오답률 : 42%

02.

20학년도 수능 / 오답률 : 52%

03.

19학년도 6월 / 오답률 : 56%

빈칸 추론하기





17학년도 6월 / 오답률: 42%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t is not hard to see that a strong economy, where opportunities are plentiful and jobs go begging, \_\_\_\_\_\_\_. Biased employers may still dislike hiring members of one group or another, but when nobody else is available, discrimination most often gives way to the basic need to get the work done. The same goes for employees with prejudices about whom they do and do not like working alongside.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of the late 1990s, for example, even the carpenters' union—long known as a "traditional bastion of white men, a world where a coveted union car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began openly encouraging women, blacks, and Hispanics to join its internship program. At least in the workplace, jobs chasing people obviously does more to promote a fluid society than people chasing jobs.

\*bastion: 요새 \*\*coveted: 부러움을 사는

- 1 allows employees to earn more income
- 2 helps break down social barriers
- 3 simplifies the hiring process
- 4 increases wage discrimination
- ⑤ improves the productivity of a company











#### 첫 문장이 빈칸인 경우는 두 번째 문장의 핵심어에 집중하라. - 접속사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면, 앞 문장의 핵심어를 뒤 문장이 부연한다.

첫 문장에서 '일자리가 풍부하여 구직활동이 필요 없는 강한 경제는 ~(빈칸)이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들은 강한 경제가 가지는 <mark>상점</mark>들이 서술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장점들 중에서 어떤 것을 한정 지어 말한 것인지는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이 결정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 집중해야 하는 단어는 'Bio.sed(편향된=차별하는)'이다. 다시 말해 두 번째 문장에서 "편향성을 가진 고용주일지라도 누구든 구할 수 없을 때, '편향=차별( discrimination)'보다 일을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할 때 차별 없이 고용하게 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동시에 'employees with prejudices'도 이런 상황이 적용된다고 서술되어 있고, 여기서 또 눈에 띄는 단어는 'prejudices (편견)'이다. 따라서 이 글의 핵심 주장은 '강한 경제의 장점은 고용에 있어서의 차별을 없애준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에서 '차별을 없애다'의 동의어인 '사회적 상벽을 깨다'가 가능한 것이다.

#### 선택지 논리 분석

정답: ② 사회적 장벽을 깨는 데 도움을 준다 - 여기서 '차별과 편견'의 동의어는 '사회적 장벽'이다. 따라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과 장벽을 깨는 것은 동일한 의미가 되고 결국 정답이 될 수 있다.

#### 오담

- ① 피고용인들이 더 많은 수입을 올리도록 도와 준다 강한 경제의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의 범위인 '차별과 편견'이라는 관점과 '임금 상승'이라는 범주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 ③ 고용과정을 단순화한다 강한 경제의 긍정적인 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고용과정이 이전에는 복잡했다고 서술되어 있거나 지금은 고용과정이 간단해졌다는 언급을 지문에서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 글의 핵심인 '차별과 편견'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난다.
- ④ 임금 차별을 증가시킨다 강한 경제의 긍정적 측면에서 벗어난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정답의 범주에서 완전히 벗어 나는 서술이다.
- ⑤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강한 경제의 긍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지만, 이 글은 고용주와 피고용주와의 관계에서의 차별이라는 관점이지 생산성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 논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It is not hard to see that a strong economy, where opportunities are plentiful and jobs go begging,
\_\_\_\_\_\_\_\_. Biased employers may still dislike hiring members of one group or another, but when nobody else is available, discrimination most often gives way to the basic need to get the work done. The same goes for employees with prejudices about whom they do and do not like working alongside.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of the late 1990s, for example, even the carpenters' union—long known as a "traditional bastion of white men, a world where a coveted union car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began openly encouraging women, blacks, and Hispanics to join its internship program. At least in the workplace, jobs chasing people obviously does more to promote a fluid society than people chasing jobs.

\*bastion: 요새 \*\*coveted: 부러움을 사는

- ① allows employees to earn more income
- 2 helps break down social barriers
- 3 simplifies the hiring process
- 4 increases wage discrimination
- ⑤ improves the productivity of a company

#### 해석 3단 논리

일자리가 풍부한 강한 경제는 고 용에서의 차별을 없애 준다.

편향된 고용주일지라도 사람을 구할 수 없을 때는 차별적 고용을 없애고 일을 끝내는 것을 더 중요 하게 여길 것이다.

일자리가 사람들을 뒤쫓는 것이 사람이 일자리를 뒤쫓는 것보다 유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

- ① 피고용인들이 더 많은 소득을 얻게 해준다
- ② 사회적 장애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고용 과정을 단순화한다
- ④ 급여 차별을 증가시킨다
- ⑤ 회사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 원문 해석

기회가 풍부하고 일자리가 지원자를 구걸하는 튼튼한 경제는 사회적 장애물을 파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란 어렵지 않다. 편향된 고용주들은 어떤 한 집단이 아닌 다른 집단의 구성원을 고용하기를 여전히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밖에 다른 누구도 가능한 사람이 없을 때는 차별은 일을 완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필요성에 아주 흔하게 자리를 양보한다. 그것은 자신들이 정말 함께 일하고 싶어 하고 함께 일하기 싫어하는, 편견을 가진 피고용자들에게 있어서도 똑같다. 예를 들면 1990년대 후반 미국의 건설 호황기에 '부러움을 사는 노조 회원 카드를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물려주던 세계였던 백인들의 전통적 요새'로 오랫동안 알려져 온 목수 노조조차도 여성과 흑인 그리고 히스패닉에게 자기네 인턴 프로그램에 들어오라고 공개적으로 권장하기 시작했다. 최소한 직장에서는 일자리가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사람이 일자리를 쫓아다니는 것보다 유동적 사회 조성에 분명히 더 많은 기여를 한다.



#### **Essential Sentence Structure**

11. It is not hard to see that a strong economy, where opportunities are plentiful and jobs go begging, helps break down social barriers

```
* beg 간냈하다

*, ~, → '사이'은 Skip해도 좋다.

* where은 머기서 라게약사가 계속적 흥법으로 사용된 것이다.
계속적 용법은 '부가적' 정보이므로 Skip해도 좋다.

단, 선행사를 '부연'하는 것이므로 알의 개념이 난해하다면 월교 도움을 받자!
```

In the American construction boom of the late 1990s, for example, even the carpenters' union—long known/as a "traditional bastion of white men, a world where a coveted union card was handed down from father to son"—began openly encouraging women, blacks, and Hispanics to join its internship program.

#### PLUS+

```
* get: 1하당시부터 5하당시까지 두후 사용될 수 있는 Verbol다.

1. 주머 + get + 수니어(or 필수부사머): get = 도착하다

2. 주머 + get + 보더: get = ~이 되다, ~하비지다

3. 주머 + get + 목적머(+ 수니머): get = ~인다, 받다

4. 주머 + get + 간·목 + 진·목: get = ~에게 ~章 (구하비)주다

5. 주머 + get + 목적머 + 목적머 보머: get = ~이 ~흘하게 하다

주의! 문법적 설립에 쓰이는 용머에 집사 X → 해석하는 법이 중요!
```

#### **Essential Voca**

- plentiful 풍부한
- go begging (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구걸을 하는
- biased 편향된
- discrimination 차별
- give way to ~에 자리를 양보하다, ~에 굴복하다
- the same goes for ~에서도 똑같다
- prejudice 편견

- alongside ~와함께
- construction 건설
- boom 호황기
- hand down ~을 물려주다
- at least 최소한
- fluid 유동적
- chase 쫓아다니다, 추적하다





20학년도 수능 / 오답률: 52%

## 0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_\_\_\_\_\_\_. In previous eras, such as the Iron Age and the Bronze Age, the discovery of new elements brought forth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 Now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unending. We are now witnessing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demands.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This situation comes at a defining moment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Fortunately, rare metals are key ingredients in green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They help to convert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and wind into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ingenuity: 창의력

- ①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 2 our effort to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 3 the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 4 governmental policies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 ⑤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 최인호 논리

빈칸이 제일 앞 문장에 있을 때는 빈칸 이전의 전제 부분과 빈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을 집중해서 보자. 특히, < 비교 구문 >이라면, 비교 대상의 단어들의 '상대어'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생각 혹은 정신 (minds)'이다. 이 문장은 비교 구문, 'not A but B'형이기 때문에 'A'와 ' B'의 상대어 관계를 고려하면 정답이 쉽게 보인다. '생각 혹은 정신(minds)'의 상대어는 '물질 (moterial)'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다시 '물질(moterial)'의 동의어는 이글에서 그리고 선택시에서 '재료 (ingredients)' 혹은 '자원 (resource)' 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된다. (이처럼 평상시 첫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한 후 비교구문이나 접속사가 등장하면 핵심어의 상대어를 떠올리는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영어를 빠르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일일 지도 모른다.) 자, 이제 이어지는 문장을 보자. 여기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데 '철기와 청동기'시대의 새로운 원소 발견이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확실해졌다. 물질에 속하는 것들이 철이나 청동이라는 것을 말하며 새롭게 발견되는 요소들(자원들)이 새로운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요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자 이 글의 전체적인 핵심은 '생산을 위한 재료(물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 결정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 문장을 보면 정답이 확실해진다. <우리의 창의력(최첨단 기술 제품)은 우리의 물질 공급(생산 재료)을 곧 앞지를 것이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첫 문장의 핵심을 반드시 마지막 문장(주제 문장)에서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정리 혹은 주장을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문장을 보면, <오늘날 한계에 다다른 공급(생산을 위한 재료)을 늘리지 않는다면 친환경 대체 기술(최첨단 기술 제품) 개발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 선택지 논리 분석

점답: ① 선택지 ②,③,⑤는 중심화제이자 '정신'의 상대어가 될 수 있는 '물질= 재료= 자원' 등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정답의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지만 선택지 ①과 ⑤는 '재료 확보'와 '자원 공급'이라는 '정신'의 상대어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⑤가 정답이 되지 못할까? 그것은 자원의 부족이 정부의억제 정책 때문이라는 내용이 글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자원들의 한계, 즉 최첨단 제품을 만들기에는 자원들이 부족하거나 유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 논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 In previous eras, such as the Iron Age and the Bronze Age, the discovery of new elements brought forth seemingly unending numbers of new inventions. Now the combinations may truly be unending. We are now witnessing a fundamental shift in our resource demands.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Our ingenuity will soon outpace our material supplies. This situation comes at a defining moment when the world is struggling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Fortunately, rare metals are key ingredients in green technologies such as electric cars, wind turbines, and solar panels. They help to convert free natural resources like the sun and wind into the power that fuels our lives.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 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ingenuity: 창의력

- ①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 to produce them
- 2 our effort to make them as eco-friendly as possible
- 3 the wider distribution of innovative technologies
- 4 governmental policies not to limit resource supplies
- ⑤ the constant update and improvement of their functions

#### 해석 3단 논리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는 우리의 정신의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생 산하기 위한 재료들 확보의 한계 일지도 모른다.

과거보다 현재의 생산에 관한 자원 수요는 더 많은 조합으로, 더 많은 양의 조합으로 인해 훨씬 많아졌다.

따라서 한계에 다다른 자원의 공 급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첨단 제품인 친환경 대체 기술의 개발 도 불가능할 수 있다.

- ①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
- ② 그것을 가능한 한 친환경적이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
- ③ 혁신 기술의 더 광범위한 보급
- ④ 자원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정 부정책
- ⑤ 그것의 기능의 지속적인 업데이 트와 개선

#### 원문 해석

첨단 기술 제품의 미래는 우리 생각의 제한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산하기 위한 재료를 확보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있을지도 모른다. 철기와 청동기와 같은 이전 시대에, 새로운 원소의 발견은 끝이 없을 것 같은 무수한 새로운 발명품을 낳았다. 이제 그 조합은 진정 끝이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제 자원 수요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인류 역사의 어느 지점에서도,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은' 조합으로, 그리고 점차 정밀한 양으로, '더 많은' 원소를 사용한 적은 없었다. 우리의 창의력은 우리의 물질 공급을 곧 앞지를 것이다. 이 상황은 세계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자 분투하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온다. 다행히, 희귀한 금속들이 전기 자동차, 풍력 발전용 터빈, 태양 전지판과 같은 친환경 기술의 핵심 재료이다. 그것들은 태양과 바람과 같은 천연 자유재를 우리의 생활에 연료를 공급하는 동력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을 늘리지 않고는, 우리는 기후 변화를 늦추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환경 대체 기술을 개발할 가당이 없다.



#### **Essential Sentence Structure**

11. The future of our high-tech goods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s of our minds, but in our ability to secure the ingredients/to produce them.

```
* lie in ~에 있다 cf. result_in + <sup>1</sup>]라
from + 원인, 이유
```

12. At no point in human history/have we used more elements, in more combinations, and in increasingly refined amounts.

```
* 부정머(No)가 또한된 머구가
강도클 위해 원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에 V(have) S(we)의 머순으로 '도치'되었다.
```

But without increasing today's limited supplies,/we have no chance of developing the alternative green technologies [we need to slow climate change.]

```
* '~說이' 의띠이뜨존, 뒤에 이어지는 주절의 해석("원는 ~할 가능성이 없다")을 보고

Without ~: "~說이는"정도의 어건으로 해석해주면 된다.

* chance of N
V-ing
```

#### **Essential Voca**

- previous 이전의
- bring forth ~을 낳다
- combination 조합
- witness 목격하다
- fundamental 근본적인
- refined 정밀한, 정제된
- outpace 앞지르다

- defining 결정적인
- reliance 의존
- rare 희귀한, 보기 드문
- ingredient 재료, 요소
- convert 전환하다
- alternative 대체의, 대안의

## 단락 연결하기(순서 찾기)

## 최인호 독해 논리

- 01 단락들의 순서를 고려하지 말고 **먼저 전체를 훑어읽기(거시적 해석)** 한 후, <mark>핵심어 들의 반복이나 그 단어들의 연결고리</mark> 등을 종합하여 **다시 미시 독해하는 방식**으로 순서를 파악하라.
- 02 주어진 조건의 단락이나 문장의 범주를 파악하라

주어진 조건의 단락이 이어질 단락의 내용이나 순서를 결정한다.

03 주어진 조건의 단락에서 제시된 내용이 2개 이상일 때는 제시된 순서를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비행기 뜨는 <mark>원리</mark>와 비행기가 변화시킨 <mark>현상들</mark>이라고 서술되었다면 바로 이어질 단락은 비행기 뜨는 원리가 되어야 하며, 그 다음 단락이 비행기가 변화시킨 현상들이 서술되어야한다.

04 추상적인 표현들로 앞 단락이 끝난다면 이어질 단락은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될 수 있다.

앞 단락: <mark>어떤 부족들</mark>은 아주 <mark>작은 것들을 심하게 존경</mark>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그것은 자신들 의 종교적 측면과 연관되어 있을 때 더욱 그렇다.

뒤 단락 : 중국의 <mark>묘족</mark>은 <mark>뱀을 신성시</mark>한다. 그것은 뱀이 그들을 지켜준다는 <mark>토템적 신앙</mark>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05 앞 단락의 마지막 문장과 이어질 단락의 첫 문장은 **중복되는 단어나 동의어가 반복**되어 있다.

이어질 단락의 첫 문장은 앞 단락의 핵심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어질 단락의 내용 범주를 알려준다.

예를 들어,

앞 단락의 마지막 문장 - '따라서, 사랑이란 일방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야 한다.'

이어질 단락의 첫 문장 - '사랑이 일방적이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 06 마지막에 와야 하는 단락은 결론 단락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앞 단락들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 07 주어진 조건의 단락이나 문장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면, 이어질 단락의 순서는 '원 인' 단락 - '문제점' 단락 - '해결방안' 단락이다.
- 08 조건의 문장이 '통념 제시''하고 있다면, 이어질 단락의 순서는 '통념의 반대 견해' 단락 - '통념 반대의 근거' 단락 - '통념 반대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이 된다.
- 09 가장 일반적인 글의 전개 방식은, '주장 근거(사례) 제시 결론'의 형태를 가진다.
- 10 각 문장 <mark>앞에 제시되는 '지시대명사'</mark>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03

단락 연결하기(순서 찾기)



STEP 01

01.

18학년도 수능 / 오답률 : 25%

02.

17학년도 수능 / 오답률 : 28%

03.

18학년도 9월 / 오답률 : 34%







18학년도 수능 / 오답률: 25%

##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Most consumer magazines depend on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Subscriptions account for almost 90 percent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Single-copy, or newsstand, sales account for the rest.

- (A) For example, the Columbia Journalism Review is marketed toward professional journalists and its few advertisements are news organizations, book publishers, and others. A few magazines, like Consumer Reports, work toward objectivity and therefore contain no advertising.
- (B) However, single-copy sales are important: they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 because subscription prices are typically at least 50 percent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 (C) Further, potential readers explore a new magazine by buying a single issue;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s are included in magazines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Some magazines are distributed only by subscription. Professional or trade magazines are specialized magazines and are often publishe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usually feature highly targeted advertising.

\*revenue: 수입







### 주어진 단락에서 열거한 사항이 두 가지 이상일 때 그것의 순서대로 단락은 전개된다.

첫 단락에서 중요한 부분은 'Most'와 '구독과 광고'라는 단어들이다. 먼저, '대부분은 ~ 이다'라고 한다면, 역접의 접속사가 등장하면서 그렇지 않은 경우를 서술할 것이기에 'most'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독과 광고'라는 두개의 사항은 순서대로 전개될 항목이기 때문에 그 순서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 첫문장을 다시 해석해 보면,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는 정기구독과 광고에 의존한다'고 설명하면서 정기구독의 반대인 '낱권(Single-copy)'의 비율이 적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B)의 시작 문장을 보면 'However'가 나오면서 '낱권'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B)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다. 결국, '대부분 ~'과 연결되는 'However'가 왔고 글의 서울 범위가 정기구독의 반대인 '낱권'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리고 (B)단락의 끝이 '낱권'에 관한 언급(낱권이 중요한 이유)으로 끝나고 (C)단락에서 'Further(게다가)'라는 '동일한 범주(낱권)'에서의 참가적 성질의 단어가 등장하므로 첫 문장에서 '낱권'의 중요성을 서울하고 있는 (C)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C)의 끝 문장에서 '광고'를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잡지들의 '표적화된 광고'를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순서상 이제 '광고'의 특성이 나와야 한다. 결국 나머지 단락(A)에서는 '광고'를 받아서 서술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보면, (A)에서 전문 잡지들의 '광고'적 특성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정답은 (B) - (C) - (A)의 ③이 된다.

### 해석 3단 논리

♥ 대부분의 소비자 갑지는 <mark>정기구독과 광고</mark>에 의존한다.

- B 그러나, <mark>날권의 가격</mark>이 구독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여전히 날권도 중요하다.
- MIC가 날견이 중요한 것은 구독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잡지들은 <mark>표적화된 광고</mark>를 특 징으로 한다.
- ▲ 전문적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의 <mark>광고</mark>는 뉴스기관, 출판사 등을 대상으로 한다.

# 본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Most consumer magazines depend on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 Subscriptions account for almost 90 percent of total magazine circulation. Single-copy, or newsstand, sales account for the rest.

대부분의 소비자 잡지는 구독과 광고에 의존한다. 구독은 전체 잡 지 판매 부수의 거의 90퍼센트를 차지한다. 낱권 다시 말해 가판대 판매가 나머지를 차지한다.

(A) For example, the Columbia Journalism Review is marketed toward professional journalists and its few advertisements are news organizations, book publishers, and others. A few magazines, like Consumer Reports, work toward objectivity and therefore contain no advertising.

(A) 예를들어, Columbia Journalism Review는 전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여 그 잡지의 몇 안 되는 광고는 뉴스 기관, 출판사 등의 광고이다. Consumer Reports 와 같은 몇몇 잡지는 객관성을 지향하기에 광고를 싣지 않는다.

(B) However, single-copy sales are important: they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 because subscription prices are typically at least 50 percent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B) 하지만, 낱권 판매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구독 가격이 보통 낱권을 살 때 가격보다 최소 50퍼센트는 더 싸서, 낱권 판매가 잡지 한권당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C) Further, potential readers explore a new magazine by buying a single issue;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s are included in magazines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Some magazines are distributed only by subscription. Professional or trade magazines are specialized magazines and are often published by professional associations. They usually feature highly targeted advertising.

(C) 게다가, 잠재적 독자들은 낱권의 잡지를 구매함으로써 새로운 잡지를 탐색한다. 구독 안내가 있는 모든 삽입 광고 카드는 당신의 구독을 독려하기 위해 잡지에 들어 있다. 어떤 잡지는 오로지 구독에 의해서만 유통된다. 전문가용 잡지 다시 말해 업계지는 특성화된 잡지이며 흔히 전문가 협회에의해 출판된다. 그것들은 보통 겨냥한 목표가 뚜렷한 광고를 특징으로 한다.

\*revenue: 수입



부연(why 중인하지에 때한 법주)

However, single-copy sales are important: they bring in more revenue per magazine,/because subscription prices are typically at least 50 percent less than the price of buying single issues.

```
*per ~당 * A less than B
"B보다 덜 A하다"
```

102. Further, potential readers explore a new magazine/by buying a single issue; all those insert cards (with subscription offers) are included (in magazines) to encourage you to subscribe.

```
encourage ① to-V
①1+ V$H至考 不是到于上十
```

### PLUS+

```
* issue

1. 문제; 쟁전, 주제, 사안

2. 발문(하다)

3. (우떤, 등전, 주식 등의) 발행(물); 발행다다

4. (정기 간행물) 호
```

- subscription 구독, 구독료
- dvertising 광고업
- account for (부분·비율을) 차지하다, 설명하다
- circulation (신문 · 잡지의) 판매 부수, 발행 부수
- single-copy 낱권
- newsstand (신문·잡지) 가판대
- objectivity 객관성

- revenue 수익
- single issue (신문 · 잡지) 한 권
- insert (책 · 신문 · 잡지에 끼워 넣은) 삽입 광고, 삽입물
- distribute 유통시키다
- trade magazine 업계지 (특정 업계나 전문 직업인 상대의 잡지)
- association 협회
- feature 특징을 이루다







17학년도 수능 / 오답률: 28%

## 02.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terestingly, being observed has two quite distinct effects on performance. In some cases, performance is decreased, even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The extreme of this is stage fright, the sudden fear of public performance.

- (A) So, if you are learning to play a new sport, it is better to begin it alone, but when you become skilled at it, then you will probably perform better with an audience.
- (B) There are many instances of well-known actors who, in mid-career, develop stage fright and simply cannot perform. The other extreme is that being observed enhances performance, people doing whatever it might be better when they know that others are watching.
- (C) The general rule seems to be that if one is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then being observed while doing it decrease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being observed while doing some task or engaging in some activity that is well known or well practiced tends to enhance performance.







### 두 가지의 경우를 제시하면. 그들의 상대적 차이점과 순서에 주목하라.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C단락과 A 단락의 순서를 정하는 논리이다. 일단 주어진 단락부터 보면, '관찰당하는 것'이 어떤 일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2개 화제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자이점'에 따라 전개된다는 것쯤은 이제 알 것이다. 그리고 첫 단락에서 2개 중에서 첫번째 것으로 수행을 저하시키는 부정적 영향인, 무대 공포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 이어질 단락(B)는 '관찰당하는 것'이 '무대 공포증'에 영향을 미치는 근거나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B 단락을 보면, 첫 문장에서 '무대 공포증'으로 연기를 하지 못하는 중년 배우를 사례로 들면서 단락의 첫 문장으로 이어받고 있다. 동시에이 단락에서는 반대의 경우로 '관찰당하는 것'이 오히려 수행을 강화시켜 주는 긍정적 영향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어질 단락은 수행 강화의 사례가 제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두 단락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다. 게다가 두 단락의 성격이 거의 유사하다. 다시 말해, 관찰당하는 것이 가져오는 부정과 긍정의 영향을 모두 정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단락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하지만 글쓰기 논리라면 쉽게 해결될 수 있다. A단락의 첫 문장 시작이 'So, if ~ (따라서, 만약~한다면)'로 시작한다. 특히, '따라서'는 결론의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 단락(C)이 전제가 되며, A 단락은 전제 단락의 문장들보다 주상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들로 용합 정리 서술되어야 한다. 즉, '일을 하는 동안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 수행 저하(C) = 혼자 하라(A),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 수행능력 향상(C) = 관중이 있을 때(A)'처럼 서술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B) - (C) - (A)의 ③이다.

### 해석 3단 논리

보기 누군가에게 관찰당한다는 것은 수행에 <mark>두 가지의 서로 다른 영향</mark>을 미친다.

- B 하나는 관찰당하는 것이 <mark>수행의 저하</mark>를 가져오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mark>수행을 강화</mark>시켜 주는 것이다.
- © 일반적으로, <mark>새로운 일을 할 때</mark>, 그것을 관찰당하는 것은 <mark>수행을 저하</mark>시키고, <mark>잘 훈련된</mark> 어떤 일을 할 때 관찰당하는 것은 <mark>수행을 강화</mark>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 ▲ 따라서, 만약 운동을 <mark>처음 시작한다면 혼자</mark>(관찰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 하는 것이 더 나으며, 운동이 익숙해지면 <mark>관중이 있을 때</mark>(관찰 당하는 것) 더 잘하게 될 것이다.

# 는리 독해, 빠른 독해 이 단어에 주목하라!

Interestingly, being observed has two quite distinct effects on performance. In some cases, performance is decreased, even to the point of non-existence. The extreme of this is stage fright, the sudden fear of public performance.

흥미롭게도,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수행에 두 가지 매우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경우에는, 수행이 저하되어 심지어 수행 결과가 아예 없는 지경까지 이른다. 이것의 극단적인 예는 대중 앞에서 공연하기를 갑자기두려워하는 무대 공포증이다.

(A) So, if you are learning to play a new sport, it is better to begin it alone, but when you become skilled at it, then you will probably perform better with an audience.

(A) 따라서, 여러분이 새로운 스포츠를 배울 때는 혼자 그것을 시작하는 것이 낫지만, 숙달이 되면, 관중이 있 을 때 아마도 더 잘할 것이다.

(B) There are many instances of well-known actors who, in mid-career, develop stage fright and simply cannot perform. The other extreme is that being observed enhances performance, people doing whatever it might be better when they know that others are watching.

(B) 연기 인생 도중에 무대 공포증이 생겨서 공연을 전혀 할 수 없게된 유명한 연기자들의 많은 사례가 있다. 반대의 극단적인 예로는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수행 능력이 높아지는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때 사람들은 무엇이든 그 일을 더잘한다.

(C) The general rule seems to be that if one is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then being observed while doing it decrease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being observed while doing some task or engaging in some activity that is well known or well practiced tends to enhance performance.

(C)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새롭거나 처음으로 하는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이 수행 능력을 저하시키는 것 같다. 이와 반대로, 잘 알고 있거나 많이 연습한 과제를 하거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것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향이 있다.



O1. So, if you are learning to play a new sport it is better to begin it alone, but when you become skilled at it, then you will probably perform better with an audience.

```
〈but 전, 후 논리〉
새울 스또스 배울 때 → alone(혼자) - 더 좋습
but
새울 스또스 능숙해질 때 → with an audience(라중과 함께) - 더 좋습
```

102. The general rule seems to be that if one is doing something new or for the first time, then being observed while doing it decreases performance. On the other hand, being observed while doing some task or engaging in some activity that is well known or well practiced tends to enhance performance.

```
* seem to-V * while 1)~計与等心에 * on the other hand量 大学美,
"V 인 것 같다" 2) 此时에 변주(논집)에 주목하자!

* tend to-V 3) =Although (decrease ↔ enhance)
"V 하는 정하이 있다" 以音 ~일지라도
```

- observe 지켜보다
- distinct 명백한
- stage fright 무대 공포증
- public 공개의
- performance 공연
- audience 관중
- instance 사례

- in mid-career 도중에서
- enhance 향상하다

# 04

## 문장 삽입

### 최인호 독해 논리

### 01 보기로 주어진 문장에서 시작되는 접속사(연결사)에 주목하자.

- \* 역접: However, Nevertheless, Nonetheless, Yet, Still, Even so, 등
- \* 강조: In fact, Indeed, In effect, As a matter of fact
- \* 出교: Similarly, Likewise, In the same way, In the same vein, By the same token
- \* 결과 : So, Therefore, Hence, Consequently, In consequence, As a result, That is why, Accordingly
- \* 요약: In short, In brief, In summary, To sum up, to put it simply, put simply
- \* 첨가: Also, In addition, Moreover, Furthermore, Besides, What is more
- \* 환언 : That is (to say), In other words, Namely, To put it another way, Put another way
- \* 화제 전환: Meanwhile, In the meantime, By the way

02 보기로 주어진 문장의 '범주'에 주목하자

삽입될 부분의 앞과 뒤 문장의 논의 '범주'를 비교하라

03 보기에 주어진 문장의 '범주'와 제시문의 첫 문장의 '범주'를 비교하라

제시문 첫 문장의 '범주'만 생각하며 독해하라.

04첫 문장은 − 서론이며 논의 범주를 제시한다.두 번째 문장부터 − 본론이며, 첫 문장의 범위 안에서만 글이 서술되며 그것들은 보통<br/>첫 문장의 근거, 사례, 부연이거나 혹은 전환과 역접의 주장으로 이어간다.마지막 문장 − 결론이며 앞 문장들의 핵심을 종합 정리, 주장한다.

 04

 문장 삽입



STEP 01

01.

19학년도 9월 / 오답률: 24%

02.

17학년도 수능 / 오답률 : 32%

03.

18학년도 수능 / 오답률 : 34%

04.

19학년도 수능 / 오답률 : 35%







19학년도 9월 / 오답률: 24%

### 🕕 \_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Moreover,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ge 18 and older derive benefits from various transfer programs, while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Both the budget deficit and federal debt have soared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①) During 2009 - 2010, nearly 40 percent of federal expenditures were financed by borrowing. (②) The huge recent federal deficits have pushed the federal debt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ar II. (③) The rapid growth of baby-boomer retirees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will mean higher spending levels and larger and larger deficits for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④) All of these factors are going to make it extremely difficult to slow the growth of federal spending and keep the debt from ballooning out of control. (⑤) Projections indicate that the net federal debt will rise to 90 percent of GDP by 2019, and many believe it will be even higher unless constructive action is taken soon.

\*deficit: 부족, 결손 \*\*federal: 연방의 \*\*\*soar: 급등하다, 치솟다





### 첫 문장이 문제를 제기하면, <보기>문장이 현상(문제점), 원인, 해결책 중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시된 글의 첫 문장이 '개정적자와 부채가 치솟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점 - 원인 - 해결책 순서로 전개될 것이다. 〈보기〉의 문장은 '개정적자와 부채 증가의 원인'에 속하는 문장이다. 왜냐하면 '18세 이상 미국인들의 절반이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으면서 다양한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 정부의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반대로 정부의 보조금 지출만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와 부채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에서 시작하는 첫 단어인 'Moreover(더욱이, 게다가)'는 같은 범주인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앞 문장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표시이다. 그래서 정답은 ④이다. 또 다른 정답의 근거는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요인이 2가지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문장은 '이러한 모든 요인(원인 2가지 이상 종합)들은'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①,②가 답이 될 수 없는 것은 그 문장들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의 현상'들을 설명한 문장들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들은 첫 문장의 문제제기의 구체적 부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또한 ③은 '재정적자와 부채 증가의 첫 번째 워인'이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다.

### 해석 3단 논리

최근 연방정부의 재정적자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직후 수준으로 치솟았다.

<mark>그것의 원인</mark>은 퇴직자의 빠른 증가로 인한 <mark>정부의 지출 증가</mark>와 18세 이상의 절반이 <mark>개인 소득세를 내지 않은</mark> 채 정부의 보조 금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 조치(해결책)가 나오지 않으면 <mark>부채가 더 증가할 것</mark>으로 예측된다.



Moreover,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ge 18 and older derive benefits from various transfer programs, while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더욱이, 18세 이상의 미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 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다 양한 (소득) 이전 지원 프로그램에서 보조금을 얻어낸다.

최근의 재정 위기와 경기 침체 동

안에 재정적자와 연방정부의 부채가

Both the budget deficit and federal debt have soared during the recent financial crisis and recession. (①) During 2009 - 2010, nearly 40 percent of federal expenditures were financed by borrowing. (②) The huge recent federal deficits have pushed the federal debt to levels not seen since the years immediately following World War II. (③) The rapid growth of baby-boomer retirees in the decade immediately ahead will mean higher spending levels and larger and larger deficits for both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④) All of these factors are going to make it extremely difficult to slow the growth of federal spending and keep the debt from ballooning out of control. (⑤) Projections indicate that the net federal debt will rise to 90 percent of GDP by 2019, and many believe it will be even higher unless constructive action is taken soon.

모두 치솟았다. 2009년~2010년 동 안에 연방정부 지출의 거의 40퍼센 트가 대출로 자금을 충당했다. 최근 의 막대한 연방 재정적자는 제2차 세 계대전 직후에 이어진 기간 이후로 본 적이 없었던 수준으로 연방정부 의 부채를 밀어 올렸다. 바로 이어질 향후 10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 퇴직 자의 빠른 증가는 사회 보장 연금과 노인 의료 보험 제도의 더 높은 지출 수준과 점점 더 커지는 적자를 의미 할 것이다. 더욱이, 18세 이상의 미 국인들 중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개 인 소득세를 거의 혹은 전혀 내지 않 으면서, 다양한 (소득) 이전 지원 프 로그램에서 보조금을 얻어낸다. 이 러한 모든 요인들은 연방정부의 재 정 지출 증가를 늦추고 부채가 통 제 불능 상태로 불어나지 않도록 막 는 것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다. 2019년쯤에는 연방정부의 순 부채 가 국내 총생산의 90퍼센트까지 증 가하리라는 것을 예측들이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곧 구체적 조 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부채는 더 높

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deficit: 부족, 결손 \*\*federal: 연방의 \*\*\*soar: 급등하다, 치솟다



Moreover, more than half (of Americans age 18 and older) derive benefits from various transfer programs,/while paying little or no personal income tax.

```
* Moreover
Furthermore
Additionally
Besides
In addition 게にわ
```

Projections indicate/that the net federal debt will rise/to 90 percent of GDP/by 2019, and many believe/it will be even higher/unless constructive action is taken soon.

```
* Projection n.71[M * Federal

= throw

Bureau of

* net + N Investigation
```

### PLUS+

- transfer 이전, 이동
- income tax 소득세
- budget deficit 재정적자
- federal 연방정부의
- soar 치솟다
- financial 재정의
- recession 경기침체

- expenditure 지출
- finance 자금을 충당하다
- retiree 퇴직자
- projection 예측
- indicate 나타내다
- constructive 구체적
-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17학년도 수능 / 오답률: 32%

### 0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Rather, they will happen only through state intervention, based on parliamentary decision.

I expect that global society will increase annual investments from 24% today to 36% of the GDP in 2052. Much of this investment will be in energy-efficient goods that are more expensive than old-fashioned stuff designed for an era of cheap energy. (①) Another share will be invested in the shift from coal to more expensive fuels, like conventional gas. (②) Some will go into the construction of new renewable energy supply, even during the years before it becomes competitive. (③) And a lot will go into repair of climate damage or adaptation to future climate damage—for example, investing in new protective walls along the coast to keep the rising ocean back. (④) These huge increases in investment would not come about if investment was left to the market. (⑤) It will be either direct, when the government invests the tax dollars in whatever capacity it considers to be most necessary, or indirect, when the government passes legislation that makes the desired activity more profitable.





### 보기 문장의 '부사(rather = 오히려)'와 '상대어(시장 – 정부)'에 주목하자.

첫 문장에서는 투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글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될 것이다. 그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때문이다. 그런데 보기에 주어진 문장은 '오히려 그것은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일어난다고 하고 있다'이다. 이 말의 전제는 '시장'에 맡겨두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앞문장이 와야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의 근거는 아주 간단하다. 첫 번째는 ⑤ 전까지는 '시장'(morket)'에서의 에너지에 관한 '투자'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만 보기 문장과 ⑤ 이후에는 '정부(今overnment)'에 의한 에너지 '투자'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글의 서술 범주를 파악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다. 두 번째 근거는 부사(rother= 오히려)의 기능이다. '오히려'는 '일반적인 기순이나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거나 다르게'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⑥의 앞 문장에서 주장하는 '투자가 시장에 맡겨진다면 투자의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오히려 정부에 의해서 투자의 증가가 일어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⑥가된다.

### 해석 3단 논리

국제사회의 투자 증가는 신재생 에너지에 집중되어 이루어질 것이다.

<mark>하지만</mark>, 그런 투자가 단지 <mark>시장</mark>에 맡겨진다면, 엄청난 투자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mark>정부</mark>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Rather, they will happen only through state intervention, based on parliamentary decision.

I expect that global society will increase annual investments from 24% today to 36% of the GDP in 2052. Much of this investment will be in energy-efficient goods that are more expensive than old-fashioned stuff designed for an era of cheap energy. (1) Another share will be invested in the shift from coal to more expensive fuels, like conventional gas. (2) Some will go into the construction of new renewable energy supply, even during the years before it becomes competitive. (3) And a lot will go into repair of climate damage or adaptation to future climate damage —for example, investing in new protective walls along the coast to keep the rising ocean back. (4) These huge increases in investment would not come about if investment was left to the market. (5) It will be either direct, when the government invests the tax dollars in whatever capacity it considers to be most necessary, or indirect, when the government passes legislation that makes the desired activity more profitable.

오히려, 그것은 의회의 결정에 근 거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일어 날것이다.

나는 국제사회가 연간 투자를 오 늘날 GDP의 24%에서 2052년에 36%로 늘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 투 자의 많은 부분은 저렴한 에너지 <mark>시</mark> 대를 위해 고안된 구식의 물건보다 는 더 비싼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투자의) 다 른 몫은 석탄에서 재래식 가스와 같 은 더 비싼 연료로의 이동에 투자될 것이다. (투자의) 일부는 신재생에너 지 공급이 경쟁력이 있기 여러 해 전 이라도 건설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 고 (투자의) 많은 부분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거나, 예를 들어 해수면 상승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 라 새로운 보호벽에 투자하는 것처 럼 미래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에 적 응하는 일로 들어갈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투자의 증가는 투자가 시장 에 맡겨진다면 일어나지 않을 것이 다. 오히려, 그것은 의회의 결정에 근 거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서만 일어 날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가장 필요 하다고 여기는 어떤 생산 능력에라 도 세금을 투자한다는 점에서 직접 적이고, 아니면 정부가 바람직한 활 동을 더 수익성이 있게 만드는 법률 을 통과시킨다는 점에서 간접적일 것이다.

#### **MEMO**



1 expect/that global society will increase annual investments from 24% today to 36% of the GDP/in 2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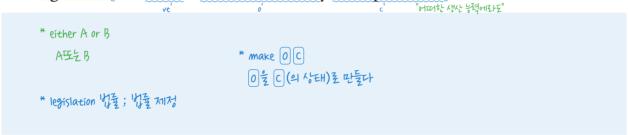
```
* from A to B

* Gross 等

Domestic 子H

Product 사사
```

12. It will be either direct, when the government invests the tax dollars in whatever capacity it considers to be most necessary, or indirect, when the government passes legislation that makes the desired activity more profitable.



#### PLUS+

- intervention 개입
- parliamentary 의회의
- annual 연간의, 매년의
- investment 투자
- old-fashioned 구식의
- conventional 재래식의
-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는

- adaptation 적응
- come about 일어나다, 발생하다
- tax dollar 세금
- capacity 생산능력
- legislation 법률
- desired 바람직한, 원하던
- profitable 수익성이 있는